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0년 11월

휴먼러니짐

참가안내

[경제] 초딩, 경제를 논하다

★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경제를 알면 돈이 왜 안 모이는지 보인다!

[철학] 레디 플레이어 원 : 놀이가 된 인문학

★ 놀이를 통해 들여다보는 인문학의 세계

[철학] 연애 인문학 :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 사랑하기도 힘겨운 시대, 연애로 풀어보는 관계의 인문학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0년 11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경제 10만원(5강), 중등부 철학 10만원(5강), 고등부 철학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좌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경제 초등

초딩, 경제를 논하다 (5강)

★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경제를 알면 돈이 왜 안 모이는지 보인다!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11월 15일~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당신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혹시 버스 기사나 아파트 경비원을 장래 희망으로 가진 분 있나요? 싫다고요? 멋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경비업체 사장은 좋다고요? 아차, 깜빡했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높은 빌딩과 멋진 차, 그리고 여유롭게 정원에 앉아 화려한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을 향하지요. 당장 지금 내 짝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에 눈동자를 요리조리 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갖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돈이면 채워지는 지금, 부자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을 욕하면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돈을 원하고 있는 지도 몰라요.

여기서 문제는 돈이란 것이 쉽게 벌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땅을 아무리 파도 10월 한 장 나오지 않는다는 어른들 말씀을 떠올려 봐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미 다 부자가 되어있게요?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 번 살펴보도록 해요. 과연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

1강_ 블루마블 제왕이 되어봅시다! : 게임으로 연습하는 부자 되기!

몇 십 년째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 보드게임 블루마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모두의 마블까지 사람들을 사로잡아버렸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게임 속에 현실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해야겠네요? 미리 힌트를 하나 줄까요? 반칙 아닌 반칙이 승리의 열쇠~. 무슨 말인지는 직접 게임을 하며 찾아보세요!

2강_ 이상한 경매 :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경매를 잘하기 위해선 딱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돈이 되는 물건을 찾아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획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매를 얼마나 잘하나 볼까요? 아이고, 그런데 이런. 상상도 못 할 물건(?)이 경매에 나왔네요!

3강_ 학 공장에서 생긴 일 : 사장과 사원의 끝장토론!

우리 함께 대박 공장을 차려볼까요? 직접 학 공장을 차려서 떼돈을 벌어보려고요! 그런데 공장만 차린다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계획을 함께 짜 보도록 해요. 그렇게 얻은 이익은 공장의 사장인 <나다>와 공평하게 나눌 거예요. 내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다니, 신나죠? 그런데 잠깐, 당신이 얼마를 받아 가야 공평하지요? +\#\$%&??

4강_ 옷핀공장의 비밀 : 자본주의가 뭐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도대체 뭘까요? 잘 모르겠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어쩌면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른답니다. 두꺼운 책 대신 우리들 몸속에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자본주의를 꺼내 보도록 해요.

5강_ 쓰고 또 써라! 그러면 행복해질지니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죽~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모두 산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결국 돈을 벌고 벌어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된 당신!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구름 위를 나는 듯 행복할 것 같다고요?■

철학 중등

레디 플레이어 원 : 놀이가 된 인문학 (5강)

★ 놀이를 통해 들여다보는 인문학의 세계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11월 15일~12월 13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사람들은 인문학 하면 으레 책상에 앉아 머릿속에 이론과 지식을 집어넣는 광경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는 인상이 지워지지 않는지 바다의 인문학 강좌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의 표정에서는 즐거움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루함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시작과 함께 그 걱정을 많이 덜어내는 것 같지만요!)

하지만 복잡한 이론과 지식만으로 인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문학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공부라면 그것은 놀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문학 공부 안에 약간의 놀이를 접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놀이의 규칙과 재미에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세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우리가 놀이에 흠뻑 빠져 즐기는 것 자체가 세상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놀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겨울, 바다에서 준비한 5가지 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놀이 속에 숨겨진 그 무엇에 한 발 더 다가서 있을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인문학이 아닌, 직접 뛰어들어 어느샌가 몸으로 익히는 인문학이라니,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서 와요, 그리고 함께 놀아봅시다!

.....
.

1강_ 배틀로얄 : 나는 왜 친구를 죽였나

[규칙 : 반경 10km의 무인도에서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죽여야 함. 제한 시간은 3일, 오직 한 사람만이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며, 만약 3일이 지난 후에도 우승자

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살]

만약 당신과 친구들이 이런 게임을 제안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게임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억지로 참여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신은 과연 친구에게 무기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2강_ 마피아 게임 : 당신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인터넷에 수없이 검색되는 별자리, 사주, 점 같은 것들을 보노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참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운명 따위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어떡하죠. 마피아 게임에서 밤이 왔을 때 참가자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걸요. 더욱 답답하고 무서운 사실은 누가 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3강_ 랜덤박스 : 0.1%의 확률에 매혹된 이유

대다수 온라인게임의 밥줄인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은 꽤 오래전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으로도 모자라 심한 경우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기까지 하니깐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도 왜 또 거기에 빠져 상자를 열고 있는 걸까요. 로또를 굶듯 0.1%의 확률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빠져든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도 그 확률에 한 번 도전해 봅시다!

4강_ 진실게임 : 진실과 거짓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사람들은 진실게임을 통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이 정말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별칙을 걸거나 표정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만약 말하는 사람도 솔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요? 분명한 것은 진실을 결정짓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리송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또 다른 힘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5강_ 왕좌의 게임 :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길래

난이도나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당수의 놀이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잡아나가는 데 재미를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보다 잔혹하게 또 신나게 힘을 휘두르곤 합니다. 우리는 왜 힘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그 자리에 간 당신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그 자리는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철학 고등

연애 인문학 :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5강)

★ 사랑하기도 힘겨운 시대, 연애로 풀어보는 관계의 인문학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11월 15일~12월 13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정말.”

과거 모 인기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처럼 이렇게 단순하면 좋으련만, 현실 속 대부분의 연애는 밀고 당기고 지지고 뉘고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리얼 버라이어티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니, <연애의 참견>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설렘과 황홀, 불안과 집착, 실망과 배신이 난무하는 막장드라마에 가까운 행위는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실제 연애란 고명하신 철학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난독과 해석 불가능의 텍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연애라는 텍스트를 읽어가는 과정은 어지간한 인간관계의 난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꽤 그럴싸한 공부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문학 공부가 세상에 새겨진 수많은 글자를 읽는 과정이라면 당신의 얼굴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글자, 세계를 함축한 메타포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서 사회 구조와 인간의 역사와 예술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이가 연예인 보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연예인보다 사랑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TV 속 등장인물과 같은 속물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더 사랑할 수 없게 될 위험성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건 진실은 연애를 둘러싼 인문학적 수다 모임에 당신이 참석해야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

1강_ 이웃집 꽃미남 : 연애 판타지를 넘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환상적인 연애를 꿈꿉니다. 여자들의 대표 판타지인 ‘백마 탄 왕자님’은 여전히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꿈속을 질주합니다. 예쁘고 섹시하고 청순하고 글래머러스하고 순종적이면서 돈 많은 여성이 나만을 사랑해준다면 마다할 남자가 있

을까요?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하지만 이런 전형적 판타지는 조금씩 모양을 바꿔서 영화나 드라마, 만화 같은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혹시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특별한 연애 판타지가 있나요?

2강_ 연애의 신 : 속물적 연애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것들

혹시 당신 주변에 있는 썸남 혹은 썸녀 때문에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연애도 아니고 연애 아닌 것도 아닌 사이는 언젠가 닥쳐올 다른 근사한 연애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요, 덜컥 다가섰다가 개망신당할까 봐 부여잡는 자존심 때문일까요?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애 관계에서는 밀당이 필수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밀당 따윈 너무 싫어, 라고 질색하는 사람조차도 연애를 시작하면 밀당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밀당의 기술을 연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3강_ 레인보우 로맨스 :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요즘은 공중파 TV의 연속극에서도 동성애가 등장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다소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동성애를 불쾌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동성애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형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연애도 물론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또는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4강_ 남자가 사랑할 때 : 가부장 사회의 연애관

자신의 꿈이 현모양처라고 수줍게 고백하는 소녀를, 요즘도 뜨문뜨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모양처만으로도 부족해서, '낮에는 현모양처 밤에는 요부'를 바라는 남성들이 여전히 세상에 많습니다. 남성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여성상이 여전히 여성들의 바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강력한 가부장 사회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모양처 따위를 요구하는 그딴 남자, 안 만나면 그만이라고요? 해묵은 가부장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남자의 마음에 숨죽여 도사리고 있다면요?

5강_ 자본주의 러브스토리 : 소비 자본주의와 연애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감정이 그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영향받고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비사회에서 사랑은 소비사회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애인의 조건이 얼마나 상품 가치를 가지느냐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고, 사랑의 크기가 명품 백이나 다이아반지로 측정되기도 하고, 사랑 그 자체가 멜로나 예로 같은 상품으로 포장되어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짜리 애인과 얼마짜리 데이트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난해서 연애도 못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교육공동체 나다 2020년 11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